

형광 채색한 폐기물로 우주를 연출한 '코스믹 카반'에서 환호하는 케니 샤프. 작은 사진은 태극기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한 벽화 'Dragon serpents adore Korea!' 다. 그는 "동양의 '음양(陰陽)'에 매혹됐다"며 "순환과 평화를 떠올리게 하는 상징"이라

예술이 된 쓰레기... 플라스틱 폐기물로 '우주'를 창조하다

쓰레기가 영원하다면, 예술도 영원할 것이다. "플라스틱 폐기물은 현대의 골치이다. 그러나 이것들을 주워다 그림을 그리면 썩지 않고 거의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 낡은 것과 새것, 비예술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고자 한다. 내 작업을 요약하면 '재가공'이 될 것이다." 미국 팝아트에 최대 활력을 가하며 등장한 이른바 '수퍼팝'의 창시자 케니 샤프(60)가 말했다. 서울 롯데뮤지엄에서 3일부터 열리는 '케니 샤프, 수퍼팝 유니버스' 전시 개막

공개되는 회화·조각 등 100여 점은 SF적 상상력을 통해 현대의 환경과 질병, 소비 지향 사회의 비판을 초현실적으로 제시한다. 핵폭발과 인류 멸망의 음침한 주제 의식을 다루면서도 1960년대 TV 만화 '고인돌 가족' (과거)과 '우주가족 젯슨' (미래)을 결합한 '젯스톤' (Jetstone) 시리즈처럼 발랄함을 잃지 않는다. "이 세 계엔 어두운 측면이 너무 많다. 우리에게엔 보다 많은 선의와 사랑, 빛과 색채가 필요하다."



美 '수퍼 팝아트' 창시자 케니 샤프 텔레비전·장난감 등 쓰레기 주워 만화적 회화로 사회적 메시지 전달
오늘부터 서울 롯데뮤지엄서 전시

을 지향한다. 드로잉 없이 캔버스에 그려 넣은 거대한 도넛과 핫도그가 새 유토피 아를 향해 떠나는 우주선으로 묘사되고, 우스꽝스러운 젤리 괴물처럼 흘러내리는 유기체 '블롭(Blobz)' 시리즈는 일상 밖 추상의 언어를 창조해낸다. "팝아트 는 주류 미술에 대한 반발이라는 과열음 과 함께 등장했다. 과거의 장르지만, 장르가 아닌 세계의 새로운 인식으로 받아들이는 한 여전히 팝아트는 유효하다." 그는 현재 자신의 팝아트를 "수퍼 두퍼

남준과도 자주 교류했다. "내가 명하지 않았을 때, 백남준이 내 아와 인연을 맺었다. 그는 내 만 거장이었으나 거만하지 않고 배 했다." 그는 이번 전시에서 배 한 오마주 작품도 선보인다. 문턱을 낮추고 경계를 지우는 고로 친다. 이것이 그가 꿈꿔왔 하는 이유다. 이번 전시장에선 는 로봇 청소기에도 열광을 잃 는 못했다. "차에 그림을 그리기

마약·핵전쟁·우주... 팝아

미국 팝아트 거장 케니 샤프, 아시아 최초 서울 개인전

‘대중적(popular)’이라는 말에서 따온 팝아트는 영국에서 처음 등장했다. 리처드 해밀턴(1922~2011)은 1956년 미국의 광고지를 오려 붙여 ‘오늘날의 가정을 그토록 멋지고 색다르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전시를 열어 주목받았다. 광고와 산업디자인 일을 했던 해밀턴은 광고지 사진도 미술 재료가 된다고 생각했다. 미술 평론가 로런스 앨러웨이드도 ‘팝아트’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전후 대중 소비시대에 걸맞은 미술이 나타났다고 격찬했다.

영국에서 시작된 팝아트는 1960년대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 화단을 급속히 달궜다. 젊은 작가들은 추상표현주의의 주관적 엄숙성에 반대하고 매스 미디어와 광고, 만화, 영화 등 대중문화적 시각 이미지를 미술의 영역 속에 적극적으로 수용, 대중미술과 순수미술의 경계를 무너뜨렸다. 앤디 워홀은 ‘팝의 교황’ ‘팝의 디바’로 불리며 시각예술 전반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주도했다. 로이 리히텐슈타인, 로버트 라우

션버그, 로버트 인디애나, 장 미셸 바스키아, 키스 해링, 재스퍼 존스, 케니 샤프 등도 워홀과 비슷한 시기에 활동하며 미국 팝아트의 전성기를 이뤄냈다.

이 가운데 샤프(60)는 미국의 워홀, 리히텐슈타인 등 거장들의 예술적 이념을 바탕으로 1980년대 새로운 팝아트의 영역을 개척했다. 3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롯데뮤지엄에서 막이 오른 ‘케니 샤프, 슈퍼 팝 유니버스’전은 팝아트의 진화를 이끈 거장의 삶과 예술을 꼼꼼하게 되짚는 자리다. 아시아 지역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독특한 캐릭터 회화를 비롯해 조각, 영상, 설치작품 등 100여점이 내걸렸다.

샤프는 뉴욕의 대중문화를 기반으로, 공상과학만화의 캐릭터와 사회적 메시지를 결합해 독창적인 예술세계를 펼쳐왔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난 그는 1978년 뉴욕으로 이주해 스쿨 오브 비주얼아트(SVA)에서 공부했다. 예술적 영감을 주는 친구들인 바스키아, 해링과 교류하며 슈퍼 팝아트의 초석을 다졌다. 대중 소비문



케니 샤프

“흔한 제품을 흔하지 않게 만드는 게 내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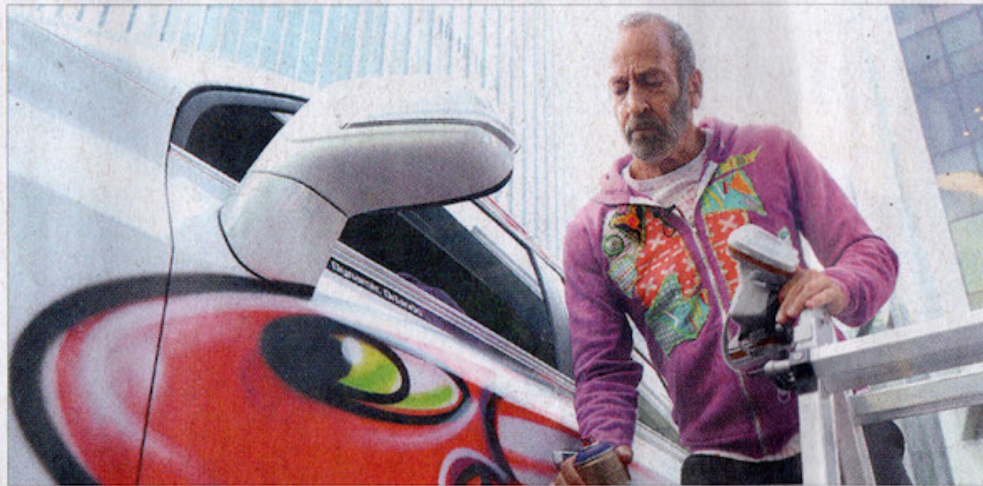
뉴욕 팝아트 선구자 케니 샤프 방한

주류 예술 저항하는 실험적 작품 선보여
공상 과학 만화·소비사회 메시지 결합
아시아 첫 전시... 회화 등 100여점 출품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살고 있는 미국 LA도 러시아워에 교통 체증이 심합니다. 보통 차는 깨끗하게만 쓰려고 하는데, 차가 막힐 때 남의 차는 어떻게 꾸몄나 보는 재미도 있지 않아요. 흔히들 지나치는 생활용품에 ‘아트’를 더 해서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게 제 일입니다.”

2일 낮 12시,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광장. 빨간색 그라피티를 휘갈긴 듯한 티셔츠에 무릎이 살짝 나온 트레이닝 바지, ‘버켄스타’ 슬리퍼를 신은 그가 ‘쉐보레’ 앞에 섰다. 그리고 곧 손에 든 스프레이를 일필휘지로 뿌리기 시작했다. 그라피티로 자동차 외관을 꾸미는 ‘카밤즈(Karbombz) 퍼포먼스’다.

뉴욕 팝아트의 선구자이자 ‘거리의 예술가’



팝 아티스트 케니 샤프가 2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광장에서 차에 그라피티를 덧입히는 ‘카밤즈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케니 샤프(60)가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다. 아시아 최초로 그의 작품을 총 망라하는 롯데뮤지엄의 ‘슈퍼 팝 유니버스전’을 위해서다.

그는 1980년대 키스 해링, 장 미셸 바스키아 등과 함께 뉴욕 이스트빌리지를 거점으로 주류 예술에 저항하는 실험적 전시를 선보인 인물이다. 바스키아가 1988년, 키스 해링이 1990년 요절한 것과 달리 케니 샤프는 지금껏 왕성

하게 활동하며 ‘팝아트의 살아 있는 전설’로 불린다. 그는 그들의 ‘요람’ 역할을 했던 ‘클럽 57’의 사진을 가리키며 “1970년대 말, 80년대 초반 뉴욕의 한 교회 지하에서 지금은 유명하지만 당시에는 무명이었던 아티스트들이 모여 그림도 그리고 춤도 추고 노래도 하며 다방면으로 활동했다”며 “굉장히 재밌는 시간을 보냈던 때”라고 말했다.

케니 샤프는 이번 전시에 공상 과학만화 리터와 소비 사회의 메시지를 결합시킨 회화, 조각, 드로잉, 비디오, 사진 자료 등 100여점 출품했다. 그의 작품은 지구 종말론에 따른 주제의 관심, 환경오염에의 경각심 등이 주마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코스믹 캐번’(Cosmic Cavern)은 폐장난감, 플라스틱 쓰레기로 버무려진 유토피아다.

그는 “예술하는 이들의 일 중 하나가 대중이 깨닫기 전에 먼저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라며 “1960~70년대, 재활용에 대한 개념이 무하던 시절부터 사람들이 플라스틱을 버리 것을 보고 걱정했는데 지금은 플라스틱의 해성을 알고도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 심각을 계속 작품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첫 방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는 “LA에 코아타운이 크게 자리잡고 있어서 한국에 관심이 많았는데, 큰 전시를 하게 돼 기쁘다” “정말 기분 좋고 신이 난다”는 말로 대신했. “일상을 아름답게라는 그의 motto처럼 커피 모금 마시고 ‘썹’, 스프레이를 뿌리는 손놀림이 더없이 경쾌했다.

이슬기 기자 seulg@seoul.co.kr

마약·핵전쟁·우주... 팝아트의 진화는 계속된다

미국 팝아트 거장 케니 샤프, 아시아 최초 서울 개인전

‘대중적(popular)’이라는 말에서 따온 팝아트는 영국에서 처음 등장했다. 리처드 해밀턴(1922~2011)은 1956년 미국의 광고지를 오려 붙여 ‘오늘날의 가정을 그토록 멋지고 색다르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전시를 열어 주목받았다. 광고와 산업디자인 일을 했던 해밀턴은 광고지 사진도 미술 재료가 된다고 생각했다. 미술 평론가 로런스 앨러웨이드 ‘팝아트’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전후 대중 소비시대에 걸맞은 미술이 나타났다고 격찬했다.

영국에서 시작된 팝아트는 1960년대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 화단을 급속히 달궜다. 젊은 작가들은 추상표현주의의 주관적 엄숙성에 반대하고 매스 미디어와 광고, 만화, 영화 등 대중문화적 시각 이미지를 미술의 영역 속에 적극적으로 수용, 대중미술과 순수미술의 경계를 무너뜨렸다. 앤디 워홀은 ‘팝의 교황’ ‘팝의 디바’로 불리며 시각예술 전반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주도했다. 로이 리히텐슈타인, 로버트 라우

션버그, 로버트 인디애나, 장 미셸 바스키아, 키스 해링, 재스퍼 존스, 케니 샤프 등도 워홀과 비슷한 시기에 활동하며 미국 팝아트의 전성기를 이뤘다.

이 가운데 샤프(60)는 미국의 워홀, 리히텐슈타인 등 거장들의 예술적 이념을 바탕으로 1980년대 새로운 팝아트의 영역을 개척했다. 3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롯데 뮤지엄에서 막이 오른 케니 샤프, 슈퍼 팝 유니버시티전은 팝아트의 진화를 이끈 거장의 삶과 예술을 꼼꼼하게 되짚는 자리다. 아시아 지역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독특한 캐릭터 회화를 비롯해 조각, 영상, 설치 작품 등 100여점이 내걸렸다.

샤프는 뉴욕의 대중문화를 기반으로, 공상과학만화의 캐릭터와 사회적 메시지를 결합해 독창적인 예술세계를 펼쳐왔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난 그는 1978년 뉴욕으로 이주해 스쿨 오브 비주얼아트(SVA)에서 공부했다. 예술적 영감을 주는 친구들인 바스키아, 해링과 교류하며 슈퍼 팝아트의 초석을 다졌다. 대중 소비문화

잠실 롯데뮤지엄서 오늘 개막 과학만화와 대중문화 결합 회화·영상·설치 등 100점 소개 바스키아·해링 등과 교류하며 팝아트의 새로운 영역 개척

기존 팝아트에 전기 충격 가해 최고치의 출력을 끌어내 미술사조 융합 ‘슈퍼 팝’ 창조

화를 미술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그는 휘트니미술관과 휘트니비엔날레에 설치 작품 ‘코스믹 카반(Cosmic Cavern)’을 출품해 단번에 스타 작가군에 이름을 올렸다.

2일 전시장에서 만난 샤프는 “내 작품은 기존의 팝아트에 전기 충격을 가해 최고치의 출력을 끌어낸 것”이라며 “내가 경험한 모든 미술 사조를 내화해 토해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일까. 그의 작품에는 초현실주의는 물론이고 추상표현주의와 팝아트,

미니멀리즘 등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공상과학만화였던 플린스톤(Flinstones)과 젯슨가족(Jetsons)의 내 용을 차용해 독특한 외계생물체의 캐릭터를 창조한 작품들은 녹아내리는 듯한 유기체 형태를 화려한 색채, 그리고 작가 특유의 유머와 결합해 전쟁과 마약 같은 현실의 문제를 지적하며 역동적인 에너지를 뿜어낸다.

우주 공간에 거대한 도넛과 핫도그를 연상시키는 작품들도 관람객을 반긴다. 가장 미국적인 음식 도넛과 핫도그를 주제로 소비주의와 자본주의에 근거한 아메리칸 드림을 은유했다. 작가는 “물질주의 삶이 주는, 거부할 수 없는 화려함과 그 이면에 숨겨진 잔혹한 인간성이라는 양 측면을 풀어냈다”고 강조했다.

휘트니미술관의 휘트니비엔날레에 내보인 거대한 설치 작품 ‘코스믹 카반’도 모습을 드러냈다. 낡고 버려진 장난감과 가전제품을 가지고 형광의 충전연색 공간으로 꾸민 작품이다. 1970년대 후반 전쟁과 마약, 에이즈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나 더 안전한 세계로 나가는 탈출구를 예술로 승화했다는 게 작가의 설명이다.

핵폭발로 인한 지구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 만화 캐릭터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롯데뮤지엄에 전시된 케니 샤프의 핵전쟁 풍자 작품 ‘피카봄(Pikaboom)’.

123개를 화려한 색채로 재구성한 작품, 1980년대 초 브라질을 여행하면서부터 시작한 ‘정글’ 시리즈, 각양각색의 얼굴이 물방울처럼 흩어지고 모여 있는 ‘블롭’ 시리즈 등도 시선을 끌어당긴다.

샤프는 이날 롯데월드타워 공장에서 자동차 외부에 그래피티를 그리는 ‘밤

즈(Karbombz)’ 퍼포먼스를 열었다. 롯데 홈쇼핑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당첨자 소유 차량에 페인팅 작업을 시연했다. 전시장 내 10m 길이의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는 그라피티, 벽화도 처음 공개했다. 전시는 내년 3월3일까지.

김경갑 기자 kkk10@hankyung.com



케니 샤프

우주선이 된 도넛, 클럽이 된 미술관

미 팝아트 작가 케니 샤프 개인전
핵·환경문제 풍자한 유쾌한 작업
회화·조각·사진 등 100여점 나와

“뭘니뭘니해도 작품은 재미있어야 한다. 예술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즐거운 일이다.” ‘살아 있는 팝아트의 전설’ 케니 샤프(59)가 한 말이다.

앤디 워홀, 장 미셸 바스키아와 키스 해링이 세상을 떠났어도 ‘팝아트’는 끝나지 않았다. 서울 잠실 롯데뮤지엄에서 샤프의 대규모 전시 ‘케니 샤프, 슈퍼팝 유니버스’는 팝아트의 남다른 시대 정신과 감각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리다. 샤프의 회화, 조각, 드로잉, 비디오 등 100여 점의 작품을 통해 일상을 환상 세계로 변화시킨 독특한 상상력과 에너지를 만나볼 수 있다.

2일 처음 공개된 전시장은 클럽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로 관람객을 맞았다. 1978년 뉴욕 이스트빌리지 반항아들이 모이던 ‘클럽 57’을 그대로 연출한 것이다. 뉴욕의 젊은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자유로운 장소였다는 것이다.



사회적 이슈를 만화 캐릭터와 화려한 색채로 표현하는 케니 샤프. Joseph Szkodzinski, [사진 롯데뮤지엄]

미 로스앤젤레스 출신인 샤프는 78년 뉴욕으로 이주해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SVA)에서 수학하면서 이곳에서 바스키아와 해링 등과 어울리며 퍼포먼스와 실험적 전시로 뉴욕 화단에 이름을 알렸다. 워홀(87년)·바스키아(88년)·해링(90년)이 차례로 세상을 떠나면서 그는 혼란을 겪었지만 지금도 그래피티와 설치작품 등 다채로운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전시장에서 만난 샤프는 “워홀은 당시

우리의 영웅이었다”며 “해링과 바스키아가 세상을 떠난 후 완전히 혼자가 됐다. 지금의 삶에 완전히 적응했지만, 당시 끈끈하고 가족적이었던 이스트 빌리지의 공동체가 몹시 그립다”고 말했다.

샤프는 주로 형광 컬러로 만화나 그래피티를 차용해 핵폭발과 지구 종말 등 심각한 주제를 다룬다. 이른바 ‘초현실주의 팝아트’다. 미국의 대표적인 공상과학 만화였던 고인돌 가족 플린스톤과 미래시대 젯

슨가족의 내용을 차용해 독특한 외계생물체를 창조하고, 불교의 만다라 상과 만화 캐릭터를 혼합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화려한 색채와 귀여운 캐릭터는 작가 특유의 유머와 결합해 현실의 공포와 불안을 색다르게 보여준다.

그의 화폭에서 달콤해 보이는 도넛은 유토피아로 떠나는 우주선(‘도넛&핫도그’)이 되고, 만화에서 본 듯한 각양각색의 얼굴은 미끈거리며 흘러내리는 물방울로 재구성된다(‘블롭’ 시리즈). 스프레이 페인팅의 에너지를 화폭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샤프는 작품에 어두운 우주 공간을 끌어들이고 발랄한 만화 캐릭터와 인류 멸망 등 모순적인 요소들을 병치하는 이유에 대해 “지금 세계엔 부정적이고 어두운 측면이 너무 많고, 나는 이를 들춰내고 싶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선의, 더 많은 사랑과 빛, 색채가 필요하다. 나의 임무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람료 1만3000원, 전시는 2019년 3월 3일까지.

이은주 기자 julee@joongang.co.kr